

일자리

I. 일자리 정책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추진 강화(2013.9.11.)

-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취업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취업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 10인 미만 기업과 농·임·어업 및 음식·숙박업 등을 강소기업에서 제외시켜 1만 개 수준으로 강소기업 DB를 재정비함.
 - 취업희망지역 → 업종 → 기업규모 등의 순서로 검색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개편하여 검색을 쉽게함.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K-Move」 추진
 - 해외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취업 사전준비부터 현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K-Move」 멘토 100명을 선정
 - 9월 중,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K-Move」 센터를 본격 가동
 - 해외진출 상담,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 귀국자 경력관리 및 재취업 지원 등 진출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ove Help Desk도 운영할 예정
 -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해 해외취업으로 이어주는 「K-Move」 스쿨 운영도 시작할 예정
- 공공부문 일자리 및 창직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3% 의무고용 대상 청년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높여 내년부터 시행
 - 청년들의 창직을 돕기 위해 전국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키우는 창직’ 사업도 시행할 계획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 분야별 대표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8개의 ‘스펙초월 멘토스쿨’(240명)을 운영 중
- 기업이 직무와 무관한 스펙 대신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보급

○ 청년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악용을 막기 위해 1일 8시간씩 주 40시간까지 가능했던 연수시간을 개정해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1일 8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연수시간이 주당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
- 휴일·야간 근로는 연수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 「2013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 개최(2013.9.26.)

-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1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700여 명의 고졸(예정)자를 채용할 예정임.
 - 대기업으로는 롯데마트가 참여하여 판매직 등 200여 명을, 중견기업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주방조리원 등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DB금융그룹 등 금융사에서는 개인 금융서비스 직 등 30여 명을 뽑고, 다산네트웍스, 네오셈 등 벤처 기업에서도 연구 및 관리직원 등 100여 명을 채용
- 이번 박람회에서는 맞춤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통한 현장면접 및 진로컨설팅도 운영함.
 - “후진학관”에서는 고졸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선 취업 후 대학 진학 지원이 가능한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인재상 등을 설명하고, “열린토

론관”에서는 진로설계, 직무능력향상 등 고졸인력의 장기적인 성공 플랜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선배들의 성공 사례 및 나승연 위원의 특강이 진행됨.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3% 고용의무 대상 청년 나이 만 34세로 상향** (2013.10.22)

-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함.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현실’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100세 시대에 맞게 향후 연구용역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별도 검토 예정

□ **고용노동부,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2013.9.4.)

-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심사하여 시상하는 대회를 9월 4일(수) 개최함.
 - 118개 자치단체에서 159개 사업을 응모하였음.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부문’과 ‘사회적기업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함.
 -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선정, 자치단체 대응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고용노동부, 「2013년 중장년 채용한마당」 개최(2013.09.11.)**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총 182개사가 참여하여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
 - 삼성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POSCO · GS · 한화 · KT · 두산 · CJ · 효성 · 현대그룹 등 13개 그룹사가 자신들의 협력사를 통해 중장년 채용 활성화에 나섬.
 - 참여하는 대기업의 협력사는 105개 회사로 (주)에프알텍, (주)동성하이켄, (주)메리디안 등 상장회사 21개가 포함되어 있고, 참가한 회사들은 주로 R&D, 기술분야의 전문직(476명), 사무관리직(454명), 영업직(146명)을 채용할 계획
- 박람회 현장에는 채용관 외에도,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구직 스킬이 부족한 중장년을 위해 ‘현장 매칭관’을 운영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에게 맞는 기업을 즉석에서 찾아 알선할 예정

□ **노사발전재단, 경제 5단체와 ‘찾아가는 전직지원 로드쇼’ 개최(2013.10.16.)**

- 40대 이상 중장년층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경제 5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찾아가는 전직지원 로드쇼’를 개최함.
 - 재단은 현재 전국 25개 희망센터 중 수도권과 부산, 대구, 전북, 강원 등 8개 권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무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고용노동부와 25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찾아가 전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1:1 맞춤형 취업상담도 진행
- 지난 9월4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전주,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

에서 개최되었던 ‘찾아가는 전직지원 로드쇼’를 통해 약 1,200명의 퇴직자가 무료 전직서비스를 받음.

□ 고용노동부,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2013.10.24.)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K-Move」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해당국 취업을 위한 현지 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
-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강화
 - 일자리 발굴체계를 기존 관 주도·연수기관 위주에서 현지의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 활용체제로 전환
 - 「K-Move」 센터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진출기업, 리쿠르트 사,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
- 구인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기존 양적규모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에서 구인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
 - 강점이 있거나 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에 6~12개월 맞춤형 연수 수 취업과 연계하는 「K-Move」 스쿨을 금년에 도입, 점차 확대할 계획
- 해외 통합정보망 구축
 - 해외 취업·인턴·봉사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 통합정보망을 구축
 - 해외 진출 희망 청년, 기취업자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질의응답 등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지원**
(2013.10.25.)

- 근로복지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은 내년 1월말까지 진행
 -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정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폴리텍대학, 기술교육대학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선 도입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 시행을 위한 안내서 및 운영지침을 마련
 - 컨설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컨설팅 완료 후에는 기관별 컨설팅 결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할 예정

□ **고용노동부, 2013년 3/4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2013.9.4.)

-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9월 5일(목)~6일(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고용률 70% 관련 지역 고용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2013년 3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담당과장,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지역 일자리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여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 및 창출 방안,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 고용센터 합동 토론회」 개최(2013.9.24.)

- 이날 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 명지대 등 전국 46개 대학 청년 고용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
 - “청년 77명에게 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짐.
- 동국대, 경기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의 대학 청년 고용센터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함.
 - 동국대는 구직표를 통해 4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DB를 관리하면서 취업을 지원
 - 경기과학기술대는 취업상담과목을 의무화하여 전교생에 대한 취업관리 실시
 - 전남대는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
 - 삼육대는 취업프로그램 참여실적을 총장추천서 및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 고용노동부, 「2013년 청년 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2013.9.27.)

- 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20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현황,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논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받음.
- 청년 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청년채용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 내실화, 청년 창직 인턴 활성화 등 방안과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를 위한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청년 취업 아카데미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토론회도 함께 이루어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

-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청년위원회는 청년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도전정신을 가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19명의 청년위원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

□ 고용노동부, 「내년도 일자리 예상(안)」 발표(2013.9.27.)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0조 9,620억 원, 본예산 기준) 대비 8,422억 원이 늘어난 11조 8,042억 원으로 올해보다 7.7% 증가함.
 - 이는 정부 총지출 357.7조 원 기준 3.3%에 해당
- 2014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7%)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4.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표 1. 2014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

(단위:조 원, %)

구분	2013 예산		2014예산안	증가율 (본예산대비)
	본예산	추경		
총지출	342,0	349,0	357,7	4,6
일자리	10,9	11,2	11,8	7,7

- 2014년 일자리 예산(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는데 있음.
 -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과정형 노동시장 구조, 여성(경력단절)·청년(과잉학력)·장년(조기은퇴) 등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
- 2014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4가지임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임.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스마트워크센터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교과부에서 이관, 70억) 등

Ⅲ. 일자리 통계

□ 2013년 9월 고용률은 60.4%, 실업률은 2.7%로 고용률은 0.4%p, 실업률은 0.2%p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2013년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 동월 대비 0.3%p만큼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61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 1천 명 증가
- 2013년 9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함.
 - 취업자는 2,54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3천 명 증가
-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 실업자는 7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

표 2.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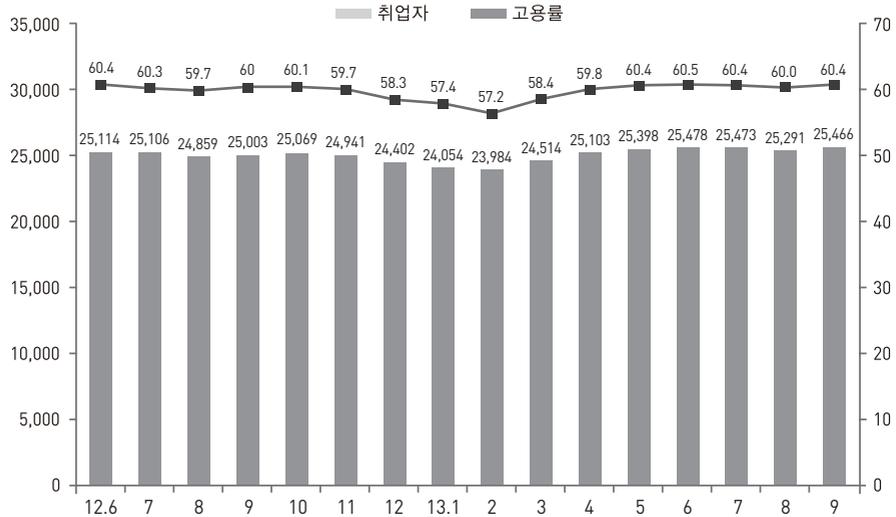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1,696	1.4	42,168	1.2	42,193	497	1.2
경제활동인구	25,755	2.7	26,074	1.8	26,186	431	1.7
참가율	61.8		73.5		62.1	0.3p	
· 취업자	25,003	2.8	25,291	1.7	25,466	463	1.9
고용률	60.0		60.0		60.4	0.4p	
· 실업자	752	-0.8	783	2.5	720	-32	-4.2
실업률	2.9		3.0		2.7	0.2p	
비경제활동인구	15,942	-0.8	16,094	0.3	16,008	66	0.4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그림 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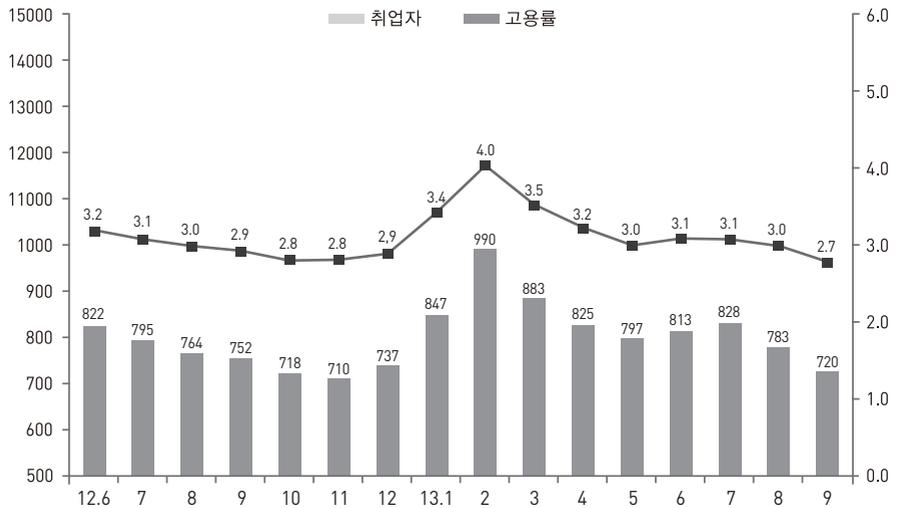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증가

- 성별 고용률은 남자는 71.4%, 여자는 49.8%로 전년 동월 대비 남자는 1.4%p, 여자는 2.5%p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7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5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73만 명으로 25만 7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30대가 0.5%p 감소하였고, 청년층(15~29세)과 40대, 50대, 60세 이상은 각각 1.0%p, 0.2%p, 4.8%p, 5.3%p 증가
 - 취업자는 30대가 3만 명 감소한 반면, 청년층(15~29세) 3만 8천 명, 40대 1만 3천 명, 50대 26만 4천 명, 60대 이상 17만 7천 명 증가

표 3.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25,003	60.0	25,291	60.0	25,466	60.4	463	1.9	
성별	남자	14,530	71.3	14,664	71.1	14,735	71.4	205	1.4
	여자	10,473	49.1	10,627	49.3	10,730	49.8	257	2.5
연령	15~29세	3,775	39.7	3,808	39.9	3,813	39.9	38	1.0
	· 15~19세	200	6.1	244	7.5	206	6.3	6	3.0
	· 20~29세	3,575	57.6	3,564	56.6	3,607	57.3	32	0.9
	30~39세	5,800	73.5	5,739	73.3	5,770	73.8	-30	-0.5
	40~49세	6,650	78.6	6,649	78.5	6,663	78.7	13	0.2
	50~59세	5,444	72.9	5,645	73.3	5,708	74.0	264	4.8
	60세 이상	3,334	39.9	3,450	40.0	3,511	40.6	177	5.3
학력	중졸 이하	4,996	40.3	4,758	39.8	4,833	40.1	-163	-3.3
	고졸	9,779	61.9	9,852	61.3	9,893	61.8	114	1.2
	전문대졸	3,394	75.6	3,442	75.4	3,446	75.9	52	1.5
	대졸 이상	6,834	75.8	7,240	75.6	7,295	75.9	461	6.7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그 밖에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1,84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703만 7천 명으로 0.9% 감소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 0.5%, 0.1%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9천 명(0.7%)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0.2%) 감소함.

표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25,003	100.0	25,291	100.0	25,466	100.0	463	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862	71.4	18,240	72.1	18,429	72.4	567	0.9
	· 상용근로자	11,291	45.2	11,842	46.8	11,888	46.7	597	1.5
	· 임시근로자	4,961	19.8	4,862	19.2	4,936	19.4	-25	-0.5
	· 일용근로자	1,610	6.4	1,536	6.1	1,605	6.3	-5	-0.1
	비임금근로자	7,141	28.6	7,051	27.9	7,037	27.6	-104	-0.9
	· 자영업자	5,803	23.2	5,747	22.7	5,724	22.5	-79	-0.7
	· 무급가족종사자	1,338	5.4	1,304	5.2	1,313	5.2	-25	-0.2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3,327	13.3	8,178	32.3	3,444	13.5	117	0.2
	36시간 이상	21,340	85.3	16,299	64.4	21,679	85.1	339	-0.2
	일시휴직	336	1.3	811	3.2	341	1.3	5	0.0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증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1만 3천 명, 고용률 39.9%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만 8천 명, 고용률은 1.0%p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25~29세가 0.9%p 감소한 반면, 15~19세, 20~24세가 각 3.0%p, 4.1%p 증가
 -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 15~19세는 6천 명 증가한 반면, 25~29세는 2만 명 감소
- 성별 고용률은 남자는 증가, 여자는 감소함. 남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5만 3천 명, 고용률은 3.0%p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1만 6천 명, 고용률은 0.8%p 감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고용률은 5.6%p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는 취업자 수가 8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7.5%p 감소하였음. 고졸은 취업자 수는 3만 9천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2.6%p 상승함. 전문대졸의 경우 취업자 수는 5만 5천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5.2%p 하락함.

표 5.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3,775	39.7	3,808	39.9	3,813	39.9	38	1.0	
연령별	15~19세	200	6.1	244	7.5	206	6.3	6	3.0
	20~24세	1,253	44.4	1,279	42.9	1,304	43.7	51	4.1
	25~29세	2,323	68.6	2,286	69.0	2,303	69.5	-20	-0.9
성별	남자	1,771	37.7	1,828	38.4	1,824	38.3	53	3.0
	여자	2,004	41.7	1,980	41.3	1,988	41.5	-16	-0.8
학력	중졸 이하	106	3.9	88	3.5	98	3.7	-8	-7.5
	고졸	1,483	38.6	1,556	38.3	1,522	38.5	39	2.6
	전문대졸	1,063	78.2	991	76.8	1,008	77.7	-55	-5.2
	대졸 이상	1,123	70.5	1,174	70.8	1,186	71.5	63	5.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만 8천 명(0.1%)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0.1%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0.6%) 감소하였고, 임시근로자는 1만 6천 명(0.1%), 일용근로자는 2만 4천명(0.6%) 증가함.
 - 자영업자는 5천 명(0.2%)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 명(0.1%) 증가함.

표 6.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3,775	100.0	3,808	100.0	3,813	100.0	38	0.0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3,506	92.9	3,542	93.0	3,544	92.9	38	0.1
	· 상용근로자	2,154	57.1	2,125	55.8	2,151	56.4	-3	-0.6
	· 임시근로자	1,098	29.1	1,106	29.0	1,114	29.2	16	0.1
	· 일용근로자	254	6.7	311	8.2	278	7.3	24	0.6
	· 비임금근로자	269	7.1	265	7.0	269	7.1	0	-0.1
	· 자영업자	179	4.7	167	4.4	174	4.6	-5	-0.2
	· 무급가족종사자	89	2.4	98	2.6	95	2.5	6	0.1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580	15.4	1,486	39.0	594	15.6	14	0.2
	36시간 이상	3,144	83.3	2,223	58.4	3,184	83.5	40	0.2
	일시휴직	51	1.4	98	2.6	34	0.9	-17	-0.5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584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명, 고용률 1.3%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각 1.4%p, 1.1%p 증가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에서 각 1.0%p, 1.1%p, 4.5%p, 0.5%p 증가함.

표 7.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5,486	51.5	5,752	52.1	5,846	52.8	360	1.3	
성별	남자	3,210	64.5	3,359	65.1	3,410	65.9	200	1.4
	여자	2,276	40.1	2,393	40.7	2,436	41.3	160	1.1
학력	중졸 이하	3,261	49.0	3,267	49.2	3,328	50.1	67	1.0
	고졸	1,570	55.1	1,720	55.8	1,744	56.3	174	1.1
	전문대졸	109	59.6	147	63.9	148	64.1	39	4.5
	대졸 이상	546	56.5	617	57.2	626	57.0	80	0.5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1.6%p 감소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4%p, 0.0%p, 0.1%p 증가
 -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 0.8%p 감소

표 8.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86	100.0	5,752	100.0	5,846	100.0	360	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799	51.0	2,972	51.7	3,074	52.6	275	1.6
	· 상용근로자	1,150	21.0	1,306	22.7	1,307	22.4	157	1.4
	· 임시근로자	1,120	20.4	1,162	20.2	1,194	20.4	74	0.0
	· 일용근로자	530	9.7	504	8.8	573	9.8	43	0.1
	비임금근로자	2,687	49.0	2,780	48.3	2,772	47.4	85	-1.6
	· 자영업자	2,144	39.1	2,242	39.0	2,238	38.3	94	-0.8
	· 무급가족종사자	543	9.9	538	9.4	534	9.1	-9	-0.8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1,211	22.1	1,796	31.2	1,322	22.6	111	0.5
	36시간 이상	4,201	76.6	3,763	65.4	4,442	76.0	241	-0.6
	일시휴직	75	1.4	192	3.3	82	1.4	7	0.0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증가

- 성별 실업자 중 남자는 4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 역시 2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감소
 - 실업률은 남자 3.0%, 여자는 2.5%로 전년 동월 대비 각 0.2%p 하락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청년층(15~29세)에서 증가
 - 실업률 또한 청년층(15~29세)을 제외한 30(-0.2%p)대와 40대(-0.4%p), 50대(-0.6%p), 60(-0.5%p)대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전문대졸에서 전년 동월 대비 7만 6천 명 증가한 반면, 중졸 이하 2만 7천 명, 고졸 2만 8천 명에서 감소함.
 - 실업률은 전문대졸에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한 반면, 중졸 이하 0.5%p, 고졸 0.3%p 감소

표 9.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752	2.9	783	3.0	720	2.7	-32	-4.3	-0.2	
성별	남자	471	3.1	498	3.3	450	3.0	-21	-4.5	-0.2
	여자	281	2.6	285	2.6	270	2.5	-11	-3.9	-0.2
연령	15~29세	270	6.7	313	7.6	320	7.7	50	18.5	1.1
	30~39세	161	2.7	183	3.1	146	2.5	-15	-9.3	-0.2
	40~49세	140	2.1	135	2.0	116	1.7	-24	-17.1	-0.4
	50~59세	124	2.2	111	1.9	96	1.7	-28	-22.6	-0.6
	60세 이상	57	1.7	41	1.2	42	1.2	-15	-26.3	-0.5
학력	중졸 이하	108	2.1	88	1.8	81	1.6	-27	-25.0	-0.5
	고졸	331	3.3	339	3.3	303	3.0	-28	-8.5	-0.3
	전문대졸	105	3.0	126	3.5	113	3.2	8	7.6	0.2
	대졸 이상	208	3.0	229	3.1	223	3.0	15	7.2	0.0

자료: 통계청(2013. 10.), 『2013년 9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2만 명, 실업률 7.7%(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증가, 여자는 7.1%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증가
- 학력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2.2%p, 고졸 1.0%p, 전문대졸 1.3%p, 대졸 이상 0.7%p 증가

표 10.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270	6.7	313	7.6	320	7.7	50	18.5	1.1	
성별	남자	148	7.7	179	8.9	167	8.4	19	12.8	0.7
	여자	122	5.7	134	6.3	153	7.1	31	25.4	1.4
학력	중졸 이하	8	7.0	9	9.4	10	9.3	2	25.0	2.2
	고졸	115	7.2	134	7.9	135	8.1	20	17.4	1.0
	전문대졸	47	4.2	70	6.6	59	5.5	12	25.5	1.3
	대졸 이상	99	8.1	101	7.9	115	8.8	16	16.2	0.7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9만 명, 실업률 1.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 남자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 여자는 0.8%로 0.3%p 감소

표 11.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112	2.0	97	1.7	90	1.5	-22	-19.6	-0.5	
성별	남자	88	2.7	77	2.2	71	2.0	-17	-19.3	-0.6
	여자	24	1.0	20	0.8	19	0.8	-5	-20.8	-0.3
학력	중졸 이하	56	1.7	47	1.4	44	1.3	-12	-21.4	-0.4
	고졸	43	2.7	33	1.9	33	1.9	-10	-23.3	-0.8
	전문대졸	0	0.0	1	0.7	0	0.0	0	0.0	0.0
	대졸 이상	13	2.3	15	2.4	12	1.9	-1	-7.7	-0.4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5천 명 증가

- 활동상태별로는 쉬었음(9만 2천 명), 정규 교육기관 통학(4만 2천 명), 연로(3만 9천 명), 진학준비(1만 6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육아(2천 명), 가사(6만 1천 명), 입시학원 통학(3만 7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5천 명), 취업준비(5만 4천 명)에서 감소

표 1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5,942	100.0	16,094	100.0	16,007	100.0	65	0.0
육아	1,458	9.1	1,453	9.0	1,456	9.1	-2	0.0
가사	5,883	36.9	5,870	36.5	5,822	36.4	-61	-0.5
정규교육기관 통학	4,080	25.6	4,075	25.3	4,122	25.8	42	0.2
입시학원 통학	97	0.6	59	0.4	60	0.4	-37	-0.2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84	1.2	192	1.2	179	1.1	-5	0.0
취업준비	396	2.5	385	2.4	342	2.1	-54	-0.3
진학준비	117	0.7	145	0.9	133	0.8	16	0.1
연로	1,784	11.2	1,846	11.5	1,823	11.4	39	0.2
쉬었음	1,405	8.8	1,511	9.4	1,497	9.4	92	0.5
기타	539	3.4	559	3.5	574	3.6	35	0.2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41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 명 감소

- 정규 교육기관 통학이 3만 4천 명, 쉬었음(4만 명), 진학준비(1만 3천 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입시학원 통학(3만 7천 명), 가사(2만 9천 명), 육아(1만 명),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8천 명), 취업준비(4만 8천 명)에서 감소

표 13. 활동상태별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58	100.0	5,431	100.0	5,416	100.0	-42	0.0
육아	235	4.3	229	4.2	225	4.2	-10	-0.2
가사	114	2.1	90	1.7	85	1.6	-29	-0.5
정규교육기관 통학	4,045	74.1	4,040	74.4	4,079	75.3	34	1.2
입시학원 통학	97	1.8	59	1.1	60	1.1	-37	-0.7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143	2.6	143	2.6	135	2.5	-8	-0.1
취업준비	291	5.3	276	5.1	243	4.5	-48	-0.8
진학준비	114	2.1	139	2.6	127	2.3	13	0.3
쉬었음	292	5.3	335	6.2	332	6.1	40	0.8
기타	125	2.3	119	2.2	130	2.4	5	0.1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82.9%, 여자는 84.7%가 정규 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의 경우, 남자는 취업준비(35.9%)가 여자는 육아(27.6%)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상태(2013.9)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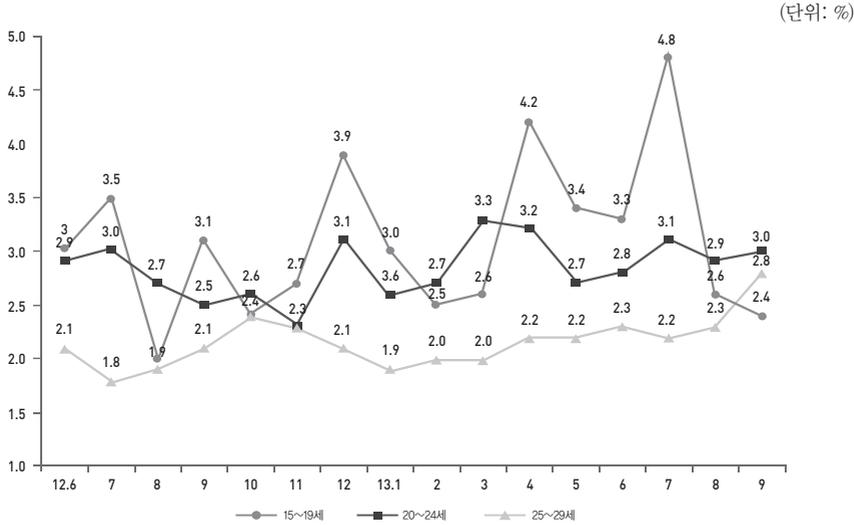
구분	남자				여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577	100.0	192	100.0	2,248	100.0	398	100.0
육아	0	0.0	0	0.0	115	5.1	110	27.6
가사	1	0.0	1	0.5	32	1.4	51	12.8
정규 교육기관 통학	2,137	82.9	25	13.0	1,904	84.7	13	3.3
입시학원 통학	32	1.2	1	0.5	23	1.0	4	1.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37	1.4	27	14.1	28	1.2	43	10.8
취업준비	43	1.7	69	35.9	40	1.8	91	22.9
진학준비	61	2.4	10	5.2	42	1.9	14	3.5
쉬었음	175	6.8	52	27.1	45	2.0	59	14.8
기타	91	3.5	7	3.6	19	0.8	13	3.3

주: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서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20대 초반(20~24세)은 2.8%로 2012년 6월의 2.9%보다 0.1%p 감소하였고, 20대 후반(25~29세)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함.

그림 3. 전체 실업을 대비 청년실업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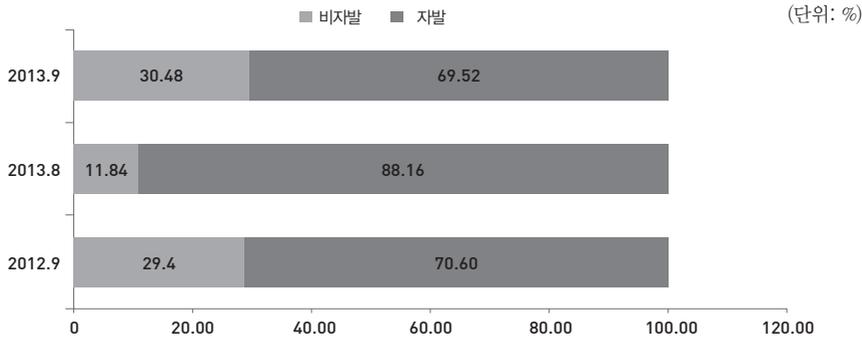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30.48%로 전년 동월 대비 1.08%p 감소.

그림 4.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7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 증가, 여자 역시 33만 8천 명으로 3천 명 증가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1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감소,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50만 2천 명으로 5만 7천 명 증가

- 고용률은 14.8%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5.2%, 여자의 경우 14.4%로 전년 동월 대비 각 1.1%p, 0.0%p 증가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30.4%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 25.6%로 0.8%p 증가

표 15.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729	14.2	835	15.9	767	14.8	38	0.6	
성별	남자	394	14.2	452	15.9	430	15.2	36	1.1
	여자	335	14.4	382	15.9	338	14.4	3	0.0
학력	전문대	205	31.0	205	32.7	191	30.4	-14	-0.6
	대학교	445	24.8	560	26.6	502	25.6	57	0.8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1%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6.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여자는 15.7%로 0.4%p 증가
 -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3.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대학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은 27.9%로 1.2%p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8.0%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
 - 성별로 남자는 7.5%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여자는 8.4%로 2.5%p 증가
 - 학력별로는 현재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증가. 현재 대학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8.4%로 1.3%p 증가

표 16.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체	15.3	6.8	17.2	7.2	16.1	8.0	0.8	1.2	
성별	남자	15.3	7.5	17.3	7.7	16.5	7.5	1.2	0.0
	여자	15.3	5.9	17.0	6.4	15.7	8.4	0.4	2.5
학력	전문대	32.7	5.6	34.4	5.1	33.0	7.7	0.3	2.1
	대학교	26.7	7.1	28.9	8.0	27.9	8.4	1.2	1.3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2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6천 명 증가하여 3.3%p 증가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인구는 5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7천 명 증가
 - '정규 교육기관 통학'하는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은 27만 5천 명으로 전체의 53.1%를 구성하고 전년 동월 대비 2.8%p 감소

표 17. 재학 중 취업 청년층(15~29세)의 주요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451	100.0	605	100.0	518	100.0	67	0.0
일하였음	196	43.5	352	58.2	242	46.7	46	3.3
일시휴직	3	0.7	17	2.8	1	0.2	-2	-0.5
정규 교육기관 통학	252	55.9	237	39.2	275	53.1	23	-2.8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영역별 NEET족 비율 모두 감소

- 청년 NEET족 규모는 79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는 6천 명 증가, 여자는 1만 7천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0대(15~19세)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3만 1천 명 증가,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5만 4천 명 감소
 - 학력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3천 명, 고졸 3천 명, 전문대졸 1천 명 증가, 대졸 이상 1만 7천 명 감소
- 전체 청년층 대비 NEET족 비율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성별로는 여자가 0.4%p 감소
 -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1.4%p 감소한 반면, 10대 후반(15~19세)은 0.5%p, 20대 초반(20~24세) 0.3%p 증가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이 전년 동월 대비 각 0.2%p, 0.5%p 증가하였고, 고졸과 대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각 0.2%p, 1.6%p로 NEET족 비율 감소

표 18.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2.9		2013.8		2013.9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증감 인원수 NEET족 비율		
전체	809	8.5	845	8.8	799	8.4	-10	-0.1	
성별	남자	476	10.1	492	10.3	482	10.1	6	0.0
	여자	334	7.0	353	7.4	317	6.6	-17	-0.4
연령별	15~19세	109	3.3	104	3.2	122	3.8	13	0.5
	20~24세	349	12.4	414	13.9	380	12.7	31	0.3
	25~29세	351	10.4	328	9.9	297	9.0	-54	-1.4
학력	중졸 이하	33	1.2	27	1.1	36	1.4	3	0.2
	고졸	450	11.7	485	11.9	453	11.5	3	-0.2
	전문대졸	112	8.2	114	8.8	113	8.7	1	0.5
	대졸 이상	215	13.5	219	13.2	198	11.9	-17	-1.6

주: 1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미혼 '가사'+'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준비'+ '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p

(작성: 김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